

청년예술가 창작 작품 · 공연 ‘한자리에’

전주시, 23일 팔복예술공장서 ‘제5회 청년독립예술제’ 개최

전주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작품 전시와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이 한자리에 펼쳐진다.

전주시는 전주형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인 ‘전주청년예술시.집’에 참여한 15팀 21인의 청년예술가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제5회 청년독립예술제’를 오는 23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5회 청년독립예술제 포스터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활동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청년예술인지원사업인 ‘2024년 청년예술시.집’에 참여할 청년예술인 15팀(21인)을 선발, △예술로 더하기(예술캠프) △예술로 만남(멘토링, 워크숍) △예술로 창작(그룹창작 활동) △예술로 연대(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청년예술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제5회 청년독립예술제’는 청년예술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가들이 4그룹을 이루어 △시선 △Happy box to you △시간의 흐름 △꿀방이라는 소주제로 꿈꾸는 전주의 모습과 예술가들의 고민을 전시(공연)로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예술가들은 ‘시선’이라는 주제로 계절의 변화가 인간의 감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 ‘Happy box to you’라는 주제에서는 인간 부재를 극복하고 인간의 운기가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예술을 통한 관측은 시각을 넘어 감정,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끝으로 청년예술가들은 꿀방(甯房)이라는 주제로 예술가의 생활과 경제적 문제, 신체적 질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정 등 다양한 일상에서의 문제들을 풀어낸다.

이와 관련, 본행사에 앞서 지난 15일 오거리광장에서 ‘오!거리광축제’와 협연으로 개막 공연이 펼쳐졌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 청년예술시집 사업은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문화예술 향유에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예술인들의 성장 기회와 경험을 지원해줄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향후 예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은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21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시의회에서 베트남 다낭과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과 면담을 통해 전주지역 관광과 문화, 예술 교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주 글로벌 홍보 마케팅 ‘주력’

시의회, 베트남 다낭 캄레우 인민위원회와 교류 활성화 등 논의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전주 관광 활성화와 문화·예술 교류, 한문화의 세계화 등을 위한 글로벌 홍보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시의회에서 베트남 다낭과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과 면담을 통해 전주지역 관광과 문화, 예술 교류 촉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를 찾은 베트남 방문단은 응오응옥허우 캄레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다낭지역 사절단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북도와 전주시, 무주군, 장수군 등에서 우리 지역 관광·문화·예술 교류 및 활성화 등에 협의한다.

남관우 의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우호 협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의는 전주와 베트남 다낭지역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한문화의 세계화를 활성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이날 오후 독일에서 활동 중인 전주 출신 이기정 한식당(모

임, mo'im) 대표와 면담을 갖고, 독일 지역의 한문화와 한국음식 세계화를 위해 제작한 한자메뉴판을 증정했다.

이번 이 대표의 전주 방문은 10월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이성국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독일 방문에 이어 연계된 한문화의 세계화 추진 전략 가운데 일환이다. 이 대표의 업체는 20년 이상 한국 음식을 제공해왔으며, 삼성 등 주요 기업의 연수시 방문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송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은 독일 방문 당시 교역석 프랑크푸르트 총영사와 면담을 통해 독일 내에 운영 중인 한식당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주 출신 청년대표와 만남에서는 한식과 한지 세계화에 대한 인식 확대를 협의한 바 있다.

송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최근 독일 방문을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화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문화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한민국과 전주시의 명성이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희망퇴움 소액대출사업’으로 위기가구 주거권 실현

전북 주거복지센터, 민간주도 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사)전북 주거복지센터의 희망퇴움 소액대출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집이 생겼어요”(희망퇴움 소액대출 수혜자 백모씨)

건강상의 이유로 자활근로를 시작한 중년 백모씨는 최근 LH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따뜻한 보증금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계약 시 본인 부담금 납부의 난관에 부딪혔고, 누군가에게는 소액의 돈이지만 자활근로

를 하는 백모씨에게는 당장 마련하기 큰돈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선정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울감에 빠졌다.

이때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주거복지 교육 시간 들었던 보증금 소액대출사업이 떠올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 상담하게 되었고, (사)전북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퇴움 소액대출사업’ 연계, 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사)전북주거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희망퇴움 소액대출사업’은 민간주도의 보증금 지원사업으로 기금은 지역의 기업, 단체, 개인의 후원을 받아 조성되며 주거취약계층에게 1인가구 최대 30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500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게 된다.

작년까지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심 있는 기업과 단체, 시민의 후원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본 사업이 올해 들어 주춤해졌다.

어려워진 경기 탓에 후원의 손길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2년 시작된 본 사업은 2022년 3건, 2023년 5건의 소액대출이 실행되었지만, 올해는 기금의 한계로 현재 2건만이 진행되었다.

고남수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는 “희망퇴움 소액대출사업은 민간주도의 사업인 만큼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생활의 가장 기본인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함께 더불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이지쿨’ 안전사고 예방 다짐 캠페인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지쿨 운전원들이 다시 한번 안전운전을 다짐했다.

21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에 따르면 교통약자지원부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9일과 이날까지 2차례에 걸쳐 이지쿨 운전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다짐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음주운전 엄금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및 과속

운행 근절 △교통법규 준수 △상시 차량 점검 실시 △운행 전 승객 안전벨트 착용 필수 확인 △고객 감동 친절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고 안전운전 의지를 다졌다. 박만희 교통약자지원부장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힘쓰는 운전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승객을 모시기 위해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운전원들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심폐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한 이지쿨 운전원들

소생술 교육도 받았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중증 교통약자 이동 지원 중 심정지 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공단 수령 강사들이 강사로 나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이론을 설명하고,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을 진행했다. 공단은 이지쿨 운전원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연상 이사장은 “안전 운행과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으로 이지쿨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인후1동 지사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생단체협의회는 21일, 동절기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인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지호)와 자생단체협의회 및 관내 사업장인 ‘한샘목욕탕’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인후1동 취약계층 150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거



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하는 등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